

인도차이나반도 내륙국가인 라오스(LAOS)는 14세기 란쌍 왕조시대 캄보디아로부터 전래된 상좌부 불교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조계종 남방불교 탐방단(단장 원택스님, 총무부장)은 2일부터 8일까지 수도 비엔티엔과 고도 루앙프라방의 사찰과 수행현장, 유적을 중심으로 현장을 둘러봤다. 탐방단은 라오스불교협회 회장 빗치(vichit)스님 등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라오스 불교교류방안도 모색했다.



◇아침 5시30분이 되면 라오스 스님들은 탁발에 나선다. 이 편아침 마을 불자들이 공양물을 가져와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모습.



◇부임프라방 비순사원에 단기출가(사마네라)하는 불자들이 가족과 친지, 마을주민들의 축복속에 출가의식을 하고 있다. 단기 출가자들은 흰옷을 걸치고 법당에 들어와 부처님께 향·초헌화를 하고 가사를 상단에 올린뒤 가족과 함께 경전을 독경하여 복심을 다진다.

조계종 라오스불교 탐방단 '동참기'

신도들 주지 추천 교단 운영 '한 축'



◇1568년 독실한 불자였던 루앙부가 조성한 수도 비엔티엔의 <부다공원> <부다공원>에는 총 500기에 달하는 불상과 현세, 국력, 지육을 형상화한 팔만트라가 있다. 사진은 <부다공원> 대표적 상징물인 와불과 4면불(앞).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4면이 육지로 감싸여있는 라오스 면적은 236,888㎢로 남한의 3배가 넘으나 인구는 5백만 명으로 10분의 1에 불과한 나라다. 인구의 95%가 불교신도로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라오스에는 3000여개의 사찰에 2만여 명의 스님이 상주하고 있다.

도시전체가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도 부임프라방을 방문한 5일째는 라오스 스님들이 3개월간의 인거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이날 아침 5시부터 사찰 앞에는 신도들이 모여들어 탁발하는 스님들에게 정성들인 공양을 올렸다.

라오스 달력에 의해 음력 7월 5일 입재에 들어가는 인거는 우기인 3개월 동안 이어진다. 인거 중에는 가족과 친지의 죽음이 있을 경우 큰스님의 허락을 받아 외부에 나갈 수 있을 뿐, 사사로운 출입이 금지된다고 한다.

라오스 내에서 스님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출가를 제외하고, 누구나 정식 스님이 될 수 없다. 스님이 되려면 지방행정기관과 라오인민청년동맹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가족 중 출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대단히 명예롭게 생각한다. 사찰에서도 새로운 출가자가 생기면 대나무에 긴 종이 연을 매단 봉을 세워 축하한다.

라오스에는 각 마을마다 라오인들의 주된 생활과 교육 문화공간인 사찰이 있다. 일정한 건축양식이 없는 라오스 사찰은 대개 대웅전을 중심으로 탑과 전등가옥양식인 요사가 일렬로 배치돼 있다. 불

두에는 수행의 상징인 육계가 탐치럼 높게 솟아 있고, 수인은 선정인 또는 시무의 인이 대부분이다.

라오인들은 사찰에서 스님들에게 국어 수학 역사 지리 등의 과목을 불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교육을 받고, 결혼적령기인 20세 이전에 절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는 '사마네라'라고 하는 단기 출가제도를 전통적으로 거친다. 3개월에서 짧게는 1주일정도 단기출가를 하는데, 단기 출가할 때는 가족과 친인척 마을사람들이 모여 축복해 준다. 여기서, 일생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생활습관과 가치관을 습득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상적 영향보다도 불교적 전통을 유지하는 요인이 된다.

인구 중 95% 불자 사찰은 문화-교육 공간 3천 사찰-2만 스님 가족중 스님 '명예'

라오스 스님 일과	라오스불교가 1975년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 과정에서 불교국가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계승하고 전통의 뿌리를 잃지 않는 것은 라오불교협회와 라오신도들의 단합에서 나왔다.
04:00 기상하여 예불	라오스공산정권이 들어서며 20년간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다'는 이유로 불교계에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05:30 탁발	하지만 공산주의 이념도 불교를 약화시키지는 못했다. 라오스정부는 결국 종교를 인정하는 라오스식 공산주의로 바꾸어야 했다.
07:00 아침공양	한국의 중단적인 라오불교협회는 라오스 불교계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다. 협회는 18개도의 지역별 협회가 조직돼 있고, 지역조직이 모여 중앙의 라오불교협회를 이끄는 체계적인 조직을 형성한다. 라오불교협회 산하에는 판파라부(교육담당)와 위빠사나부(수행담당)가 있다.
08:00 위빠사나 수행	
11:00 점심공양	
13:00 신도집 방문 축원	
16:00 마음법회	
18:00 명상	
20:00 자유시간	
22:00 취침	

라오스 승가대학 4년제 학사관리 엄격

라오스 승가대학은 수도인 비엔티엔의 동프사원에 있다. 라오스 승가대학(사진)은 라오스불교를 움직이는 엘리트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1년 예비과정, 3년 정규과정 총 4년제이다. 1년 예비과정은 300명, 2-4년은 200여명이며 교수는 10명이 봉직하고 있다. 학인들은 경, 율, 론 3장을 기본으로 공부하고, 학과는 학년 당 2과목로 영어, 불어 등 어문과인 악문사와 수학 과학 등 이과인 쿠사로 나뉜다. 라오스 승가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사찰에서 추천을 받아, 각 지역 불교협회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300명을 선발하여 1년 예비과정에 입학한다. 1년 예비과정을 통해 60명을 선발하고, 이들이 2-4년의 정규과정을 거쳐 졸업하게 된다. 캄베엔교수(심리학 전공)는 '1971년 승가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이 설립됐다'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라오스불교협회의 기둥이 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라오스불교협회 회장 빗치스님이 한국-라오스 불교 교류 협력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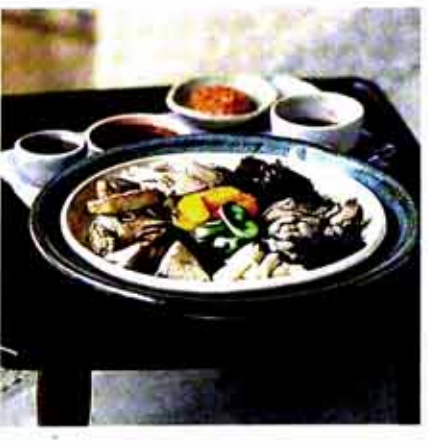
라오스 불교협회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여, 벽촌에 있는 절의 불사나, 수도승을 선출하는 데도 연합회의 승인이 필요할 정도다.

절에서는 왼쪽 어깨에 무투(하얀) 천을 두르는 것으로 스님에게 제자의 예를 표하는 라오스 신도들은 사찰의 평생소임인 주지임명 추천권한, 사찰의 운영과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등 교단의 한축을 형성한다. 라오스 불교가 종교를 인정치 않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국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잃지 않았던 것은 신도들이 평소 존경하는 스님을 주지로 협회에 추천하는 권한 등 투철한 신심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오불교협회 회장 빗치스님은 '협회는 4분야를 담당한다'며 '첫째는 출가여부 결정, 둘째는 교육, 셋째는 수행과 실천, 넷째는 사찰의 보수 및 신축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국불자들이 처음으로 라오스 불교계를 방문해 주고 고맙게 생각하며, 교현방문을 시작으로 한국-라오스 불교의 교류협력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상호교환방문이나 의료보조, 복지 분야 등에 있어서 라오스 불교와의 교류 가능성은 자못 크다'고 말했다.

글=김원우 기자 www1@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ego@buddhapa.com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버섯 모듬회

고려 고종 19년(1232),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의 일이다. 강화도에서 제작된 팔만대장경은 뱃길로 부산포를 거쳐 합천 해인사로 옮겨졌다. 부처님의 법만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민심은 대장경의 운반을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로 받아들였다. <고려사>에 따르면 이 장경의 운반을 위해 스님들이 모였었다. 대장경을 옮길 때는 땅 위에 내려놓아도 안 되고, 등에 저도 안 되었다. 오직 머리에 안 채로 100여 리의 험준한 산길을 올라가야 했으니 그 고충은 행언할 길이 없었다. 실세 없이 독경을 하며 움직이는 스님들의 발자국은 해어진 짚신 사이로 퍼를 출리고 있었다. 어느덧 석양이 들들 내려앉았지만 가야산의 모습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다. 앞장선 스님들이 지름길을 찾았다. 그간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리하여 조심스레 길을 찾는데, 발밑에서 하얀 버섯이 피어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에 밟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부릅뜬 발의 고통이 버섯을 밟는 순간 가시지 않는가. 하도 신기해서 스님들은 버섯이 피어있는 길을 따라가며 풍경을 달려왔다. 우여곡절 끝에 밤이 깊어서야 이 운봉사는 마무리되었다. 다음날 아침, 밤새 고생했던 스님들이 어제 밤 해매던 산길을 돌아보면서 모두 깜짝 놀라고 말했다. 해인사를 코앞에 두고 주위를 뱅뱅 돌았던 것이다. 더욱 놀란 것은 부르르 떨고 있던 발바닥의 상처가 모두 말끔하게 나았던 것이다. 모두가 부처님의 위신력이었다. 그 후 스님들은 신길의 아픔을 달래준 버섯을 신성하게 여겨 산사의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귀중한 음식으로 여기고 있다. 『약선식연구』 <산사에 기린 약발 한식당이었다> 저자

육류 독제거...항암 효과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생표고버섯, 목이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각 50g씩, 볶은 소금, 참기름, 고추장, 간장, 식초, 참장, 땅콩가루 각 1큰술
요리법 ①각종 버섯을 잘 씻어 데친 후 물기를 빼고 차게 식혀 접시에 보기 좋게 담는다. ②기호에 따라 참기름, 장, 초간장, 참장, 초고추장을 양념장으로 곁들여 찍어 먹는다. ③곁들이는 야채는 단호박, 당근 쥬스, 생오이가 좋다.
효능 ①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므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환자에게 특히 좋다. ②육류의 독을 제거하며 항암작용이 뛰어나고 다이어트에도 최고다.